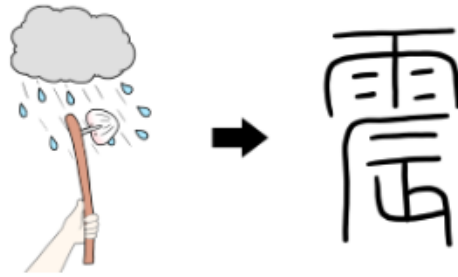


3(2)  
-  
391

형성문자 ①



震

震자는 '벼락 치다'나 '천둥', '지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震자는 雨(비 우)자와 辰(지진 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낫의 일종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震자는 벼락이 내리치며 나는 '우렛소리'를 뜻한다. 벼락이 치면 큰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기 때문에 震자는 '벼락'이라는 뜻 외에도 '진동'이나 '지진'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레 진:

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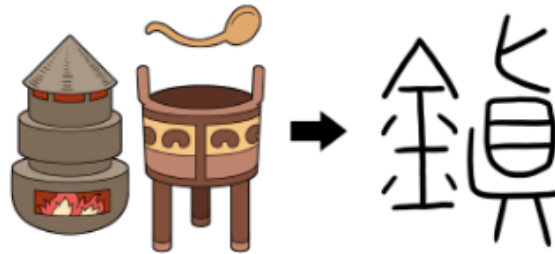
소전

震

해서

3(2)  
-  
392

회의문자 ①



鎮

鎮자는 '진압하다'나 '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鎮자는 金(쇠 금)자와 眞(참 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眞(참 진)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술'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술을 그린 眞자에 金자를 더한 鎮자는 술처럼 무거운 것으로 눌러 제압한다는 뜻이다. 鎮자가 가진 '진정시키다'나 '진압하다'라는 뜻도 모두 누른다는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진압할  
진(:)

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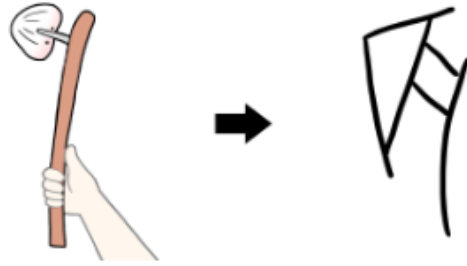
소전

鎮

해서

3(2)  
-  
393

상형문자 ①



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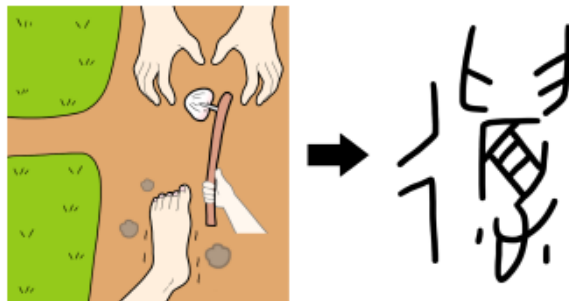
별 진 |  
때 신

辰자는 '별'이나 '새벽', '아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辰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조개를 본뜬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농기구의 일종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옛사람들도 辰자의 기원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는지 갑골문과 금문 사이의 변화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辰자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농기구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농사'를 뜻하는 農(농사 농)자에 辰자가 쓰인 것도 이것이 밭을 갈던 농기구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94

회의문자 ①



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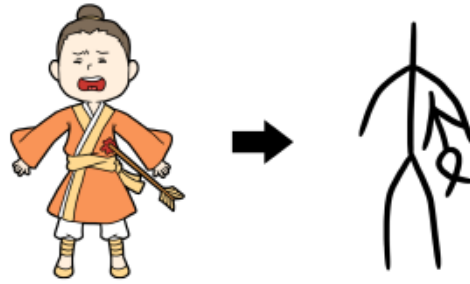
떨칠 진:

振자는 '떨치다'나 '진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振자는 手(손 수)자와 辰(지진 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자는 조개 모양의 낫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振자를 보면 彳(조금 걸을 척)자와 辰자, 止(발 지)자, 그리고 양손이 攴 그려져 있었다. 또 止자의 양옆에는 점이 찍혀있는데, 이것은 발을 내디딜 때 나는 진동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振자의 본래 의미는 '진동하다'였다. 하지만 후에 '떨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고 소전에서는 글자가 크게 바뀌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

3(2)  
-  
395

회의문자 ①



疾

병 질

疾자는 '병'이나 '질병',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疾자는 疒(병들 녉)자와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大(클 대)자 옆으로 矢자가 그려진 𠄎 모습이 었다. 이것은 사람이 화살에 맞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大자 대신 疒자가 쓰 이면서 지금의 疾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고대에는 일반적인 질병을 疾이라 하고 심각한 질 병은 病(병 병)이라고 했다. 화살에 맞는 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빨리 치료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주(疾走)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 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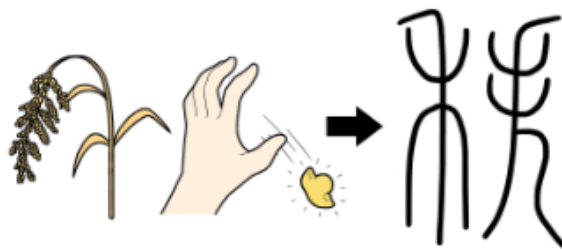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396

회의문자 ①



秩

차례 질

秩자는 '차례'나 '질서', '가지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秩자는 禾(벼 화)자와 失(잃을 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失자는 손에서 물건을 떨어트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잃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손동작만이 응용되었다. 秩자는 본래 벼단을 가지런히 쌓아놓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벼를 수확하면 일정 분량을 묶어 쌓아놓는데, 秩자는 손으로 벼를 쌓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차례'나 '순서'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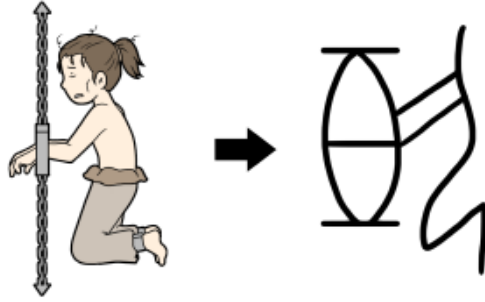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397

회의문자 ①



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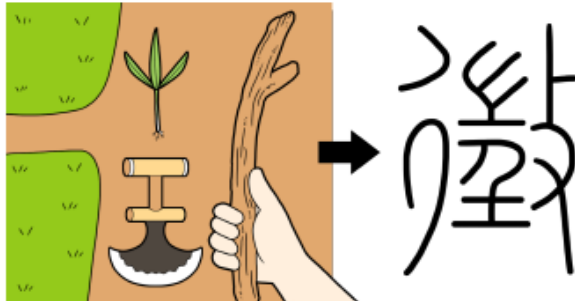
잡을 집

執자는 '잡다'나 '가지다', '맡아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執자는 幸(다행 행)자와 丸(알 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執자의 갑골문을 보면 죄수의 손에 수갑을 채운 𢦏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執자는 이렇게 죄수를 붙잡은 모습을 그려 '잡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금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수갑은 幸자로 팔을 내밀은 모습은 丸자가 대신하면서 지금의 執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98

회의문자 ①



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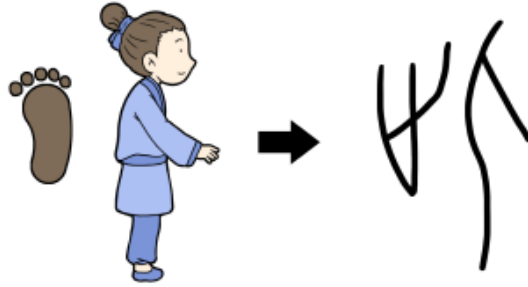
부를 징

徵자는 '부르다'나 '징집하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徵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王(임금 왕)자, 攴(칠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徵자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왕명으로 동원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徵자에 쓰인 王자는 '왕명'을 뜻하고 攴자는 무력을 써서라도 '따르도록 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다'라는 뜻의 彳자까지 있으니 徵자는 왕명에 따라 징집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徵자에 '밝히다'나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징집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소전	해서

3(2)  
-  
399

회의문자 ①



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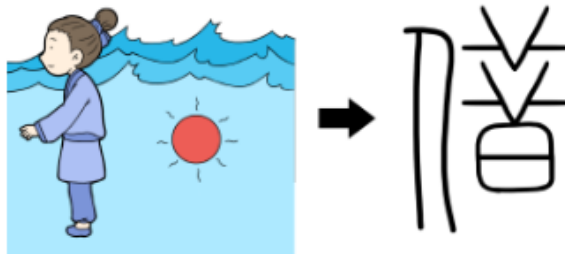
此자는 '이곳'이나 '이것'과 같이 가까운 곳을 뜻하는 글자이다. 此자는 止(발 지)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匕자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발을 그린 止자가 더해진 此자는 사람과 발을 함께 그린 것이다. 此자는 이렇게 사람과 발을 함께 그려 '사람이 멈추어 있는 곳'이란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此자는 가장 가까운 곳이란 의미에서 '이곳'이나 '여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00

형성문자 ①



借

借자는 '빌리다'나 '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借자는 人(사람 인)자와 借(예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借자는 태양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옛날 옛적'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양념한 고기를 뜻하는 腊(포 석)자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借자는 남에게(人) 음식(腊)을 빌린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만 지금의 借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빌리다'나 '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빌/빌릴  
차:

소전	해서